

켄텍, 미국 ‘미네르바 혁신 교육과정’ 도입

국내 대학 최초...미네르바대 창립자와 계약 체결
“에너지 신산업 핵심인재·기술 육성 마중물 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국내 최초로 세계적 혁신대학인 미국 미네르바 대학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2일 켄텍에 따르면 미국 미네르바 대학의 핵심역량 과정과 최첨단 온라인 학습 플랫폼 포럼 도입을 위한 계약을 최근 미네르바 프로젝트 창립자이자 CEO인 벤 넬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네르바 프로젝트는 수십 년에 걸친 학습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융합형 커리큘럼과 액티브러닝(능동형 학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네르바 대학이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제공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입학률 1~2%)이자, MIT, Stanford(스탠퍼드대)에 이은 최상위 혁신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은 프로젝트 도입 이후, 뛰어난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 진출하거나 창업과 대학원 진학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켄텍이 학생들이 사용할 미네르바 프로젝트 온라인 학습 플랫폼 ‘Forum TM’은 학습과학에 근거해 교수와 학습자간 완전한 능동적 학습을 제공하는다.

또 학습간 학생 참여도 실시간 분석, 팀별 온라인 협업도구 제공, 수업 전과정 녹화 및 개인별 정확한 피드백, 교수자가 5분 이상 발언 시 경고 등 철저한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이다.

특히 기존 일방향 교수자 중심의 온라인 학습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든 학생이 맨 앞줄에 앉아 강의를 듣는 방식’의 학습몰입이 가능하다.

켄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네르바의 학습컨텐츠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토론, 실시간 풀링, 소그룹 모임 등 학생 주도의 능동학습과 학제간의 전이학습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 효과적 소통, 효과적 협동역량을 체계적으로 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도 켄텍은 현재 자체 설계중인 현장형 탐구프로젝트 기반(Inquiry Based Learning) 공학 교과의 연계를 통해

해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 공학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희준 켄텍 총장은 “새롭게 개교하는 켄텍만이 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하게 됐다”면서 “글로벌 공학교육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탄소중립 등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아 우리나라가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인재와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네르바 벤 넬슨은 “켄텍과 함께 혁신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양성할 켄텍에 있어 미네르바의 학제간 커리큘럼과 학습과학에 기반한 학습플랫폼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인

인천

20/28

서울

20/29

대전

20/27

전주

20/29

광주

20/28

목포

21/27

부산

21/26

제주

25/27

하늘

06:06 해질 18:57

달출 01:46 달질 16:51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50

빨래

20

세차

20

운동

70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30

목포

10:54 05:35

순천

60-30

여수

06:44 01:15

여수

60-30

여수

19:25 12:42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동-동/0.5-1.0m

먼바다

북-북동/0.5-1.5m

오후

앞바다

북-북동/0.5-1.0m

먼바다

북동-동/0.5-1.5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동-동/0.5-1.0m

먼바다

북-북동/1.0-2.5m

오후

앞바다

북동-동/0.5-1.5m

먼바다

북동-동/1.5-2.5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9월 4/토

☁ (20/29)

☀ (19/28)

☁ (18/25)

☀ (18/28)

☁ (18/27)

☁ (24/28)

5/일

☁ (19/28)

☁ (19/28)

☁ (19/25)

☁ (18/28)

☁ (18/27)

☁ (24/28)

6/월

☁ (20/27)

☁ (20/27)

☁ (19/24)

☁ (19/26)

☁ (20/28)

☁ (24/28)

▶ 날씨안내 : 국민일보131

광주경찰서 “어등산 개발 재검토를”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협상이 결렬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공공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경찰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사업자에게 더는 끌려다니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초기에 토지를 수용한 목적은 공공성 때문이었다”며 “공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된 서진건설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더는 이 사업이 공전하지 않도록 서진건설의 대응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석 앞두고 재래시장 방역

각 지자체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보건소 방역반, 부녀회, 상인회원들이 관내 운암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박은성기자

광산구, 스마트기술로 이주민 언어장벽 해소

공공기관 정보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광주 광산구가 스마트기술로 이주민들과 언어장벽을 해소해 주목을 끌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민과 선주민 간 언어 장벽을 낮추고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월곡톡’을 구축했다.

광산구 월곡동에 자리한 NK비전센

터에서 보고회를 열어 월곡톡을 주민에게 선보였다. 월곡2동은 고려인과 탈북자 등 다양한 이주민이 선주민과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이다.

광산구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월곡2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

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월곡톡을 활용해 중고물품 거래, 구인과 구직 등 생활에 필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공유, 공기 질 모니터링 결과 확인, 공유주차면 조회 등 활동도 월곡톡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을 소식과 광산구 등 공공기관 정보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광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112 신고 등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삼호 구정장은 “월곡톡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며 “자생적 도시재생 기반 마련과 주민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국립대 첫 ‘스피드게이트’ 설치

전남대병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립대병원 최초로 최첨단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 신속·정확한 출입관리에 나섰다

‘스피드게이트’는 병원출입이 허가된 환자·보호자·직원을 선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출입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전남대병원이 가장 먼저 운영하게 됐다.

우선 내방객 출입이 가장 많은 1동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7레인을 설치했으며, 출입에 필요한 QR코드 발급용 키오스크 3대를 설치해 지난 1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환자인식 팔찌 또는 QR코드를 이용해야 한다.

먼저 입원환자나 보호자의 경우 스피드게이트 상단 발열감지기 앞에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서 환자 및 보호자 인식 팔찌를 리더기에 인식하면 스피드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외래 예약환자는 내원 당일 오전 7시에 휴대폰을 통해 발급받은 QR코드를 리더기에 대면 출입할 수 있고, 초진환자는 스피드게이트 옆에 설치된 키오스크 또는 안내문에 부착된 QR접속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달의 5·18유공자에 故 리영희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9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故리영희씨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1929년 12월2일생인 리 유공자는 언론인 및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예비검속으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이후 전국 계엄령 확대 선포와 동시에 광주 폭동 배후조종 주모자로 몰려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두 달여 만에 석방됐다.

리 유공자의 묘는 현재 제1묘역 7-4번에 안치돼 있다.

9월10일 OPEN

첨단 연제

비즈파크

남다른 투자가치와 미래형 첨단 업무시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과 다양한 세제혜택 ! 10만여 배후수요를 가진 고품격 프리미엄 오피스 !

✓

분양가 9,900만원의 프리미엄 오피스

✓

다양한 세제혜택 (재산세, 취득세 감면)

✓

실투자금 1,000만원이면 나도 건물주

✓

주택수 미포함 (대출 최대 90%까지) !!

※ 상가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단 연제

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

1661-4470

분양정보관 :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치평동 1213번지) 우체국보통우편국 1층

CMYK